

방기선 대통령 특사, 아르헨티나 신임 대통령 취임식 참석

- 남미 전통적 우방국이자 광물·식량부국인
아르헨티나 신정부와 협력관계 강화 모색-

-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12.8.(금)-12.11.(월)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하여 12.10.(일) 「하비에르 밀레이(Javier Milei)」 아르헨티나 신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였다.
- 방 특사는 대통령 취임식 참석 계기 「밀레이」 신임 대통령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축하 인사와 각별한 안부를 전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중시하는 양국이 공동 가치를 기반으로 우호관계를 굳건히 발전시켜 나가자는 윤 대통령의 뜻을 담은 친서를 전달하였다.
 - 아울러, 방 특사는 본인이 대통령 특사로서 직접 취임식에 참석하게 되어 영광스럽다고 하고, 앞으로 양국 협력관계가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기를 희망하였다.
 - 밀레이 대통령은 경축 특사의 취임식 참석과 윤석열 대통령의 안부에 감사를 표하고, 재임 기간 동안 양국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공감하였다.
- 대통령 취임식 하루 전인 12.9(토) 방 특사는 「몬디노」 외교장관 내정자를 면담하여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등 공동 가치에 기반하여 양국 간 주요 자원에 대한 경제안보 협력과 통상·투자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하였다.

- 특히, 방 특사는 최근 리튬 등 핵심광물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지속 증진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우리 기업들이 아르헨티나에서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신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다.
- 「몬디노」 외교장관 내정자는 양국이 유지해온 우호협력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한국과 아르헨티나가 농축산물 및 광물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협력 잠재력이 높다고 하면서 양국 간 경제협력 증진을 희망하였다.
- 이외에도 방 특사는 12.9.(토) 아르헨티나 지상사 대표 간담회를 개최 하여 아르헨티나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 금번 경축특사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지난달 윤대통령과 「밀레이」 대통령간 (당시 당선인) 통화(11.24)에 이어, 남미의 전통적 우방국이자 자원·식량부국인 아르헨티나와의 그간의 우호적 관계를 확인하고, 향후 밀레이 신정부와도 긴밀한 협력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박영철	044-200-2136
	외교안보정책관실	담당자	사무관	이채영	044-200-2139
	외교부	책임자	과 장	오승준	02-2100-7431
	중남미국	담당자	서기관	이서원	02-2100-7240